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신 지 연

서울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최 수 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을 예측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들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가설로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미혼 남녀 총 610명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41부(오프라인 22명, 온라인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6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직·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공격성을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만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와 데이트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교육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 본 논문은 신지연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함.

† 교신저자 : 최수미, 건국대학교 상담학과,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503호

Tel : 02-450-3825 / E-mail : sumi0727@konkuk.ac.kr

Erickson(1950)의 정체감 발달이론에 따르면 발달단계상 성인기 초기는 친밀감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성인기 초기의 친밀감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자 결혼 후 생활양식 및 결혼 만족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배우자 선택의 필수적인 선행과정이다(차정화, 전영주,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관계 또는 데이트는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은, 2007). 그러나 이성관계가 항상 낭만적일 수는 없고 서로 간의 생각과 기대 차이로 때론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질투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며 심하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다(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iper, 1983). 이렇게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상징적/심리적 강제, 위협, 경멸 등과 같은 통제와 지배의 포괄적인 행동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유선영, 2000).

사이버 경찰청 범죄통계(2015)에 따르면 매년 6,000~7,000건의 데이트폭력 범죄가 발생하며 2015년에는 데이트폭력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었고, 데이트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2010년 371건에서 2014년 678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통계(2015)에 따르면 이성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752건 중 20대가 26.1%(196건)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4%(105건)를 차지해 약 40% 이상이 20, 30대의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성인기 초기의 미혼남녀의 데이트 폭력 발생이 매 해 증가하고 그 사건의 심각성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감을 위주로 하는 이성관계의 특성상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며(강희순, 이은숙, 2014),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 대상에게서 받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폭력 보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서경현, 2008). 또한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전조로써 결혼 후 부부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적 측면의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정소영 외, 2011).

교제 중인 미혼남녀들은 서로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감정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으며,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구속이나 질투심으로 비롯된 상대방의 공격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허용하려는 경향이 있다(Gamache, 1991). Bartol과 Bartol(2005)은 데이트폭력은 이성교제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과 직접적이면서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혔고, 이소희(2013)는 공격성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면 질투심, 피해의식, 증오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공격성이 낮은 사람은 쉽게 폭력을 하지 않지만,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라도 더 자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김유정, 서경현, 2009; 서경현, 안귀여루, 2007; 서경현, 이경순, 2002). Ellis(1976)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an, Neidig와 O'Leary(1994)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Bookwala와 그의 동료들(1992)은 데이트 폭력의 예측 변수들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조춘범, 이현,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격성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이나 특징에 의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Mischel & Shoda, 1995) 이성관계시 어떤 특징들이 공격성이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성관계는 결혼관계와는 달리 상호 책임성이 없다는 특징으로 서로에게 적합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이다(Loyd & Cate, 1985). 이러한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성교제 시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 (Rejection Sensitivity)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까지 거부의 신호로 지각하여 이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하는 기질이다 (Downey & Feldman, 1996). 정이랑(2013)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이성관계에서 더 많은 적대감과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연인 관계의 질 또한 낮다고 하였다.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이희경(2014)은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에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Ayduk과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Ayduk과 그의 동료들(1999)은 28일 동안 데이트를 한 사람들의 일기를 관찰한 결과 이성관계 내 갈등의 횟수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비슷했지만,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의 신호를 경험한 다음 날 갈등을 촉발하는 행동을 더 많이 저질렀다. 그들은 데이트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꼬투리를 잡는 등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끝내자는 협박을 일삼거나 상대를 심하게 몰아세웠다. 이처럼 거부민

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성교제 시 거부나 배신 또는 떠나려는 시도 등을 느낄 때 거부에 대한 강한 부정적서를 경험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Gurreo & Anderson, 2000; Marcus & Swett, 2003).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 연구들에서 거부민감성은 데이트폭력 가해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Downey, Feldman, & Ayduk, 2000; 양승애, 서경현, 2015)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증가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 거부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거부되기 싫어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우위를 선점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우위의 선점 욕구와 실행은 '권력', '권력 관계'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송민경, 2008). 높은 권력 욕구를 보유한 사람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의 통제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한다. 또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간섭한다(McClelland & Burham, 1975). 이러한 권력 소유 현상은 이성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권력구조가 데이트폭력의 근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비대칭 패러다임이다 (Yllo, 1993). Johnson과 Leone(2005)은 커플 사이에 비대칭 권력구조가 데이트 폭력의 근간에 있다고 보면서 관계에서의 주도권이나 권력

혹은 지위의 비대칭(asymmetry)이 폭력 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Johnson (2005)은 비대칭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특징은 통제와 권력이며, 파트너를 통제하고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한 폭력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이다(Ronfeldt, Kimerling & Arias, 1998). Stets(1991) 역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였다(이성희 외, 2016). 한편 Cillessen과 Mayeux(2007)은 공격성은 이점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관계 내에서의 공격성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 하게 하는 하나의 기능적인 행동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격성은 이성관계에서 통제와 권력과 연관이 있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성명주, 2016). Mason과 Blankenship(1987)은 권력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욕구의 위협 받는 상황이 오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고, 특히 여성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권력욕구는 성적 공격성은 관련이 높았다(Malamuth, 1986). 이러한 비대칭적 권력구조가 공격성을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 발현되었을 때 권력자 즉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가해경험을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폭력의 행사를 통한 통제와 지배욕의 충족이라는 목적의 성취는 긍정적 강화와 죄책감의 부재와 반격의 감소라는 부정적 강화를 통해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더욱 더 강

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이상균,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이성간의 관계의 비대칭적 권력구조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예측요인에 대한 이해는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데이트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은 공격성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한 5개 대학교 및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총 350부 설문지를 배

포하여 347부가 회수되었고, 온라인의 경우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설문지를 게재하여 총 263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41부(오프라인 22명, 온라인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6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집단의 응답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306명(53.8%), 남자가 263명(46.2%)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만 19~24세(54.8%), 만 25~29세(31.3%), 만 30~35세(11.6%), 만 36~40세(11.6%), 만 40세 이상(0.4%)로 나타났다. 이성과의 교제기간별 분포는 6개월 미만(29.7%), 6개월~1년 미만(23.7%), 1년~2년 미만(20.4%), 2년~4년 미만(16.5%), 4년 이상(9.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분포는 대학교 재학(46.4%), 대학교 졸업(29.3%), 대학교 졸업 이상(17.6%), 고등학교 졸업(6.7%)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거부민감성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を対象으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2016)에 의해 개발 및 타당화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추후 거부민감성 척도는 박명진과 양난미(2017)에 의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예기분노(5문항), 예기불안(3문항), 과잉반응(4문항), 거부로 지각(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기분노 문항은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대한 구성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예기불안 문항은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대한 불안에 대한 구성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과잉반응 문항은 거부

를 지각한 후의 과잉반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거부로 지각 문항은 거부단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여 애매모호한 단서에도 거부를 기대하고 거부로 지각하게 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예기분노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에 의해 타당화 된 거부민감성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예기분노 .88, 예기불안 .82, 과잉반응 .83, 거부지각 .80으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예기분노 .87, 예기불안 .78, 과잉반응 .81, 거부지각 .80, 전체 .90으로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대칭 패러다임

본 연구에서는 관계에서의 주도권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 혹은 지위의 비대칭(assymetry)이 비대칭적 데이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urray의 욕구이론에 기초하여 Steers와 Braunstein(1976)이 개발한 욕구질문지(Manifest Needs Questionnaire: MNQ)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질문지는 Murray의 욕구이론의 대표적 욕구인 성취욕구, 권력욕구, 소속욕구 및 자율욕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2010)은 권력욕구 5문항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군림하고 싶어 하는 비대

칭 패러다임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비대칭 패러다임을 측정하기 위해 서경현 외(2010)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집단 속에서 일할 때 명령하는 위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활동에 지시하는 편이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을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권력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경현 외(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후 공통분이 .30이하로 떨어지는 2번 문항을 제외한 내적합치도 계수가 .72로 나타났다.

공격성

본 연구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개발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를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의 운동 요소를 반영하며, 언어적 공격성은 행동의 도구적 요소를 반영한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동의 정서적 혹은 정동적 요소를 나타낸다.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인지적 요소를 반영한다. 본 척도 문항의 예로는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일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나는 화

를 참기 어렵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척도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86으로 양호하였으나, 하위요인들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67 ~ .76으로 다소 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도 .8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들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62 ~ .76으로 원척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Delgado(2010)가 개발한 VGP (Violencia de Genero Percibida)척도를 한국형으로 변환한 것을 사용하였다. VGP의 원저자인 Delgado(2010)에게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척도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스페인어 전공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번역팀이 각각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역 번안한 후에 이것을 원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이를 상담전공 석사 2인, 상담전공 박사 1인과 본 논문 연구자와 지도교수가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판 VGP를 완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데이트폭력 가해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척도 CTS-2(Straus et al., 1996)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정적상관(.33, $p < .01$)을 나타내었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하위요인은 통제(5문항), 괴롭힘(3문항), 외로움(3문항), 질투(5문항), 불명예(6문항), 정서적 무관심(4문항), 성적압력 혹은 무시(7문항), 심리적 조종(5문항), 위협(5문항), 지배(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통제 .66, 괴롭힘 .84, 외로움 .86, 질투 .88, 불명예 .93, 정서적 무관심 .90, 성적압력 혹은 무시 .98, 심리적 조종 .92, 위협 .95, 지배 .95, 전체 .98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2.0을 활용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방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측정변수들과 잠재변수 그리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가 자료와 적절하게 잘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후 2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단계 모두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절대적합지수와 함께 표본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CFI, TLI, GFI 값을 통해 이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CFI, TLI, GFI 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수준의 적합도를 의미한다(우종필, 2012). 이를 바탕으로 최종모형을 결정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검정 방식을 사용하여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변인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테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정규분포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검토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15에서 1.04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대값은 .27에서 .46으로 정규성 위반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테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거부민감성은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r=.45, p<.01$), 테이트폭력 가해행동과도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0, p<.05$). 비대칭 패러다임은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r=.21, p<.01$), 테이트폭력 가해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5, p >.05$). 또한 공격성 역

표 1. 연구모형 내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변인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1			
비대칭 패러다임	.11**	1		
공격성	.45**	.21**	1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10*	.053	.21**	1
<i>M</i>	2.84	2.95	2.49	2.61
<i>SD</i>	0.71	0.69	0.49	1.43
왜도	-0.11	-0.15	0.17	0.17
첨도	-0.13	-0.35	0.27	0.10

* $p < .05$, ** $p < .01$

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r = .21, p < .01$).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의 검증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FI = .963, TLI = .954, GFI = .926, RMSEA = .068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의 요인 부하량이 .55 ~ .98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8 ~ .59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 공격성, 데이

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CFI = .963, TLI = .954, GFI = .926, RMSEA = .068로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의 확인적 분석결과와 같은데, 이는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이 동치모델이기 때문이다. 동치모델은 공분산행렬을 가진 모델로서, 동일한 적합도와 자유도를 가지지만 한 개 이상의 경로가 다른 형태를 한 모델이다(우종필,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만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 공격성 및 데이트폭력간의 관계

그림 2는 이성 간 데이트를 경험한 성인 남녀의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 공격성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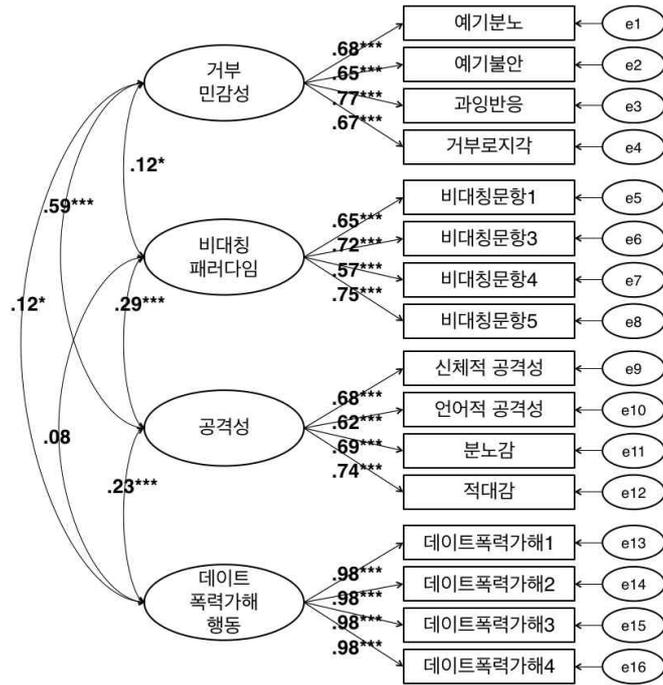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	CFI	TLI	GFI	RMSEA
연구모형	356.126*** (98)	.963	.954	.926	.06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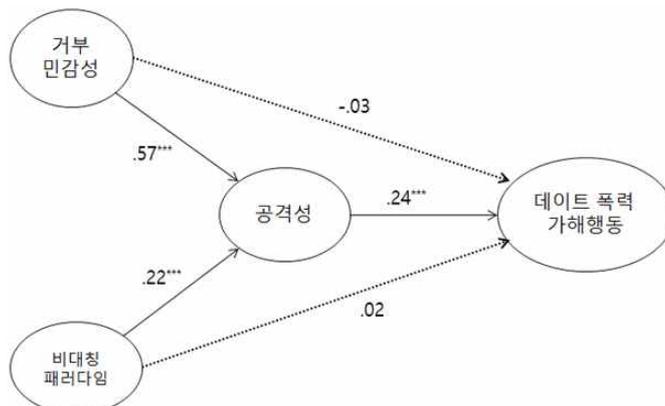


그림 2.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 공격성,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구조적 관계

면, 거부민감성과 비대칭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민감성과 비대칭패러다임은 공격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beta=.57, p<.001$; $\beta=.22, p<.001$). 따라서, 높은 거부민감성과 비대칭패러다임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은 데이트폭력가해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beta=.24, p<.001$). 즉,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진 대상일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비대칭패러다임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설정한 공격성의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이때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영가설이 기각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는 부

트스트랩 실행을 위해 원 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치에 사용되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산출되었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beta = .13$ 로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05 ~ .23)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칭패러다임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beta = .05$ 로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2 ~ .11로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시행되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

표 3. 측정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거부민감성 → 공격성	.57***		.57***		
비대칭패러다임 → 공격성	.22***		.22***		
거부민감성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03	.13**	.11	.05	.23
비대칭패러다임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02	.05**	.07	.02	.11
공격성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24***		.24***		

** $p<.01$, *** $p<.001$

(Patterson, Kupersmidt, & Charlotte, 1992; 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정이랑, 2013; 김선미, 홍상환 2014;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과 이성관계에서의 주도권 혹은 권력의 비대칭(asymmetry)이 폭력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Johnson & Leone, 2005; Ronfeldt, Kimerling & Arias, 1998; Stets, 1991; 김재엽 2010; 윤진 외, 2012)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고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의 특징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공격성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예언변인이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 Pan, Neidig, & O'Leary, 1994; Felix & McMahon, 2006; 서경현, 안귀여루, 2007)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과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은 두 사람 중에서 공격성이 더 높은 사람 때문에 시작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은 아동기 때부터 발달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됨으로 성인시기에 확정적인 태도로서 형성되기 전인 아동기, 청소년 시기부터 조속히 개입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시켜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순화시키거나 이를 적절하게 발산하고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공격성완화 프로그램,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공격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

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며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부민감성은 공격성의 예언변인이었으며 공격성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이성교제 시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거부의 신호를 경험하게 되면 데이트 상대방의 행동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고, 이에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어 결국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폭력행동과 같은 과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Downey, Feldman, & Ayduk, 2000)와 상대방의 거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하게 되는 공격적인 행동이 타인과의 신뢰감에 문제를 일으키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Downey와 Freitas(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모두가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항상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데이트 폭력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거부당한 경험을 했거나 거부를 당했을 때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이희경 외, 2014), 특히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이성관계라는 상황에서 관계의 상실이나 상대방에게서의 거부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거부나 이성관계의 파국으로 해석하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거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려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역기능적 반응양식이 거부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응이므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대처 방식들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비대칭 패러다임은 공격성의 예언변인이었으며 공격성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성교제 시 비대칭적 권력구조 내에서는 강자가 공격성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 자기존재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고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신체적, 심리적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계에서의 주도권이나 권력 혹은 지위의 비대칭이 폭력행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Yllo(1993)의 주장과 권력구조가 이성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폭력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심했음을 밝힌 Straus(1974)의 연구, 권력관계의 비대칭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성명주(2016)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성인기에 원만한 이성관계를 위해서는 이성관계에서의 비대칭적인 권력구조가 데이트 폭력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관계에서 권력의 비대칭이 데이트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성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과 관계에서 대등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데이트폭력의 원

인과 기제를 밝히고 거부민감성과 비대칭 패러다임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칭 패러다임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해외의 연구였고 한국에서 데이트폭력과 비대칭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한국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변인들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기존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연구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을 주로 다뤘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은 이성교제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뿐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나타는 공격행동들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기 초기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진 연인이나 데이트폭력 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개인의 거부민감성을 파악하는 것과 건강한 이성 관계를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권력관계를 해소하고,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과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함을 나타내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사용한 질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 변인의 측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인관계의 비대칭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대칭 패러다임 변인에 대한 연구 및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 공격성,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시간경과의 흐름에 따른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예측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 김선미,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 383-402.
- 김재엽 (1998). 한국기정의 폭력실태와 사회복지개입의 필요성: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협회 제4회 학술세미나*.
- 박명진 (2016).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제1판). 서울: 청람.
- 사이버경찰청 (2015). 2014년도 경찰범죄통계자료.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21-39.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경현, 안귀여루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353-368.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성명주 (2016).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권력동기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조절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민경 (2008).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 현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공용. 서울: 한나래 아

- 카데미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상균 (1999). 중학생 포래따돌림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37(4), 357-379.
- 이성희, 강혜인, 김연수, 박수현, 박시윤, 박지영, 박지예, 육지영 (2016).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 성인애착, 관계통제와 데이트폭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 165-178.
- 이소희 (2013). 초등학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타당성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4), 127-151.
- 정이랑 (2013).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이현 (2013).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4), 31-54.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 7(1), 39-57.
- 한국여성의전화 (2015).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자료.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pp.411-423.
- Ayduk, O., Down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 pp. 245-271.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pp. 435-448.
- Bartol, C. R. & Bartol. A. M. (2005).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7thed). New Jersey: Person Education. Inc.
- Bookwala, J., Frieze. I.,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7. pp. 297-311.
- Cillessen, A. H., & Rose, A. J. (2005). Understanding popularity in the peer syst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pp. 102-10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pp.16-29.
- Delgado, C. (2010). Escala VGP de violencia psicológica de género percibida en la pareja [VGP Scale of perceived gender psychological violence between partners]. Salamanca: Informe de investigación no publicado.
- De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 pp.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ea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Do rejection sensitivity women get rejected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pp. 545-560.
- Ellis, A. (1976). Healthy and unhealthy aggression. *Humanities*, 12, pp. 239-254.
- Eric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2ed, 1963).
- Felix, E. D. & McMahon, S. D. (2006). Gender and Multiple Forms of Peer Victimization: How Do They Influence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Violence and Victims*, 21(6), pp.707-724.
- Gamache, D. (1991). Domination and control: The social context of dating violence, In Barrie Levy(Eds.) *Dating violence*, WA: Seal Press.
- Guerrero, Laura K.; Andersen, Peter A. (2000). *Close relationships: A sourcebook*. pp. 171-183.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pp. 467-482.
- Johnson, M, & Leone, J.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imate terrorism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pp. 322-349.
- Johnson, M. P. (1995). Patriarchal terrorism and common couple violence: Two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 283-294.
-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pp.755-773.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pp. 952-962.
- Marcus, R. F. & Swett, B. (2003).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3), pp. 313-327.
- Mason, A., & Blaankenship, V. (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pp. 203-210.
- McClelland, D. C. & Burnham, D. H. (1975). Power driven manager: Good Guys make Bum Bosses. *Psychology Today Dec.*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Reconceptualizing situation, dispositions,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 pp. 246-268.
- Pan, H. S., Neidig, P. H., & O'Leary, K. D. (1994). Male-Female and aggressor-victim differences i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 modified conflict tactics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pp. 366-382.
- Patterson, G., Kupersmidt, J. B., & Charlotte, J. (1992). Childhood peer rejection, aggression, withdraw, and perceived competence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behavior problems in preadolescence. *Pyy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5(13), pp. 28-29.
- Ronfeldt, H. M., Kimberling, R., & Arias, I. (1989).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pp. 70-78.
- Steers, R. M., & Braunstein, D.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pp. 251-266.
- Stets, J. 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pp.97-114.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74). Theories, methods, and controversies in the stud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In S. K. Steinmetz & M. A. Straus (Eds.),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Do.
- Yllo, K. A. (1993).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7. 07. 23.
심사통과접수 : 2017. 12. 23.
최종원고접수 : 2017. 12. 25.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asymmetry
on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Shin Ji Youn

GwangJin-G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Choi Su Mi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factors to Dating Violence.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asymmetry and Dating Violence. To do this, conducted a questionnaire on 610 people who 19 years older adult and had of have the romantic relationship. A total of 569 data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exculding 41 data (22 offline and 19 online) that were not responded to or answered inappropriately. The collected data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asymmetry did not have direct effects on Dating Violence. but only indirect effects of Aggression on Dating Viol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is paper ends with a discussion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is study as well as future directions of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Asymmetry, Aggression, Dating Violence*